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증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어판 gpnewsjp.org

중어판 gpnewsch.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5. 5 ~ 2024. 5. 25 제299호

## 생명존중 과학자 27명, “신학교에서 유신진화론 가르치면 안돼”

국내 생명을 존중하는 과학자 27명이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은 노골적으로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의 박영식 교수의 유신진화론지지 입장에 따른 징계 사건과 관련해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하주현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비판한 데 이어 나온 입장이다.

건국대, 경북대, 경인여대, 경일대, 구미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포스텍, 한동대 등 전국 14개 대학 27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생명존중 과학자모임’은 지난 22일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신론적 진화론은 새로운 과학적 이론이

아니고,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무신론적 진화론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유신론적 진화론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고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아담과 하와의 실제적인 존재를 부인한다.”며 “원숭이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언제부터 원숭이가 갑자기 영적 존재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학자가 무신론에 기반한 과학 이론인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인 창조를 부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다음세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일부 신학자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란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창조를 부인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과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식 교수는 서울신대가 2019년, 신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신입생 유치를 위해 창조과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K박사를 강사로 임용하고 창조과학 관련 교과목을 대학원 과정에 개설한데 대해,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이라 칭하며 비판하는 글을 소셜 미디어(SNS)에 게재했다.

이와 관련 한국창조과학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본질적으로 성경을 부정하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유신진화론이 신학대학에서 허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박성준 전도사 (새삼침례교회)

## “그리스도의 형상을 답아가기 원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동안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던 안 목회자의 인신구속을 각오하고 5개월여 만에 대면예배를 재개한 미국 그레이스커뮤니티 교회(존 맥아더 목사). 당시 그레이스 교회에 출석 중

이던 박성준(당시 매스터스 신학교 재학 중) 신학생은 당시 그레이스 교회의 예배 재개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그 과정을 통해 경험한 은혜를 복음기도신문에 특별기고 형식으로 나눴다. 그리고 지난

2021년 귀국,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새삼침례교회 부교역자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성준 전도사를 최근 만났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82)

##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

죄와 죽음이 아담의 혈통을 따라 전해지면서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같은 종류를 재생산하여 번식하는 법칙이 적용된다.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를 열매 맺고, 고양이도 반드시 고양이를 낳는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로마서 5:12, KJV) 이와 같이 아담의 죄로 인

해 그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던 것 같이 그 후손들 또한 모두 죽게 되었다.

현상수배 포스터를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의 죄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인의 의미는 그런 범죄자들 이상으로 훨씬 더 끔찍한 개념을 갖고 있다.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지만, 성경의 죄인에 대한 심판은 그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본성’이란 어떤 상태 또는 형편을 말한다. 예

를 들어 의사가 심장병 환자를 진찰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 환자는 자신의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심장병 환자가 계단을 오르고 나면 숨을 헉헉거리며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증상’이라고 한다. 즉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증상’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 곧 죄의 상태가 사람마다 죄를 짓는 범죄 행위, 곧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가 심득한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바로 있는 실상 그대로를 가르쳐 주신다. 모든 사람 중에서 죄와 사망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는 성경이 죄와 사망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대할 것은, 무엇보다도 그 진리에 대해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 부르키나파소, 치안 불안정... 영토 40% 정부 통제 밖



▲ 부르키나파소의 여성과 아이. 제공: WMM

**엄마** 등에 업혀 있는 아이가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다. 엄마의 몸을 타고 전해지는 엄마의 말소리와 숨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엄마의 움직임에도 아랑곳없이 아이를 꿈나라로 이끈다. 엄마의 품,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곳. 마치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런 곳.

그러나 서아프리카 사헬의 심장부에 위치한 부르키나파소

는 영토의 40%가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때문에 정세와 치안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다. 2022년 두 차례의 쿠데타 끝에 이브라힘 트라오레 육군 대위가 이끄는 군정이 정권을 잡은 뒤 사헬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펼치던 프랑스군이 작년 2월 모두 철수하는 등 서방과의 관계도 악화됐다. 부르키나파소는 2015년부터 이슬람 무장단체

ISIS(아이시스)와 연계한 무장단체의 준동으로 2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 하나님의 안전한 품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GPNEWS]

## 인도 기독교인들, 종교 자유 지키기 위해 투표소 향해

인도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매체 월드에 따르면, 인도에서 지난 19일, 전 세계 인구의 10%가 넘는 9억 70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가 시작됐다. 앞으로 6주 동안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투표에서 인도인들은 전국에 있는 100만 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통해 투표하게 된다.

현직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바라티야 자나타(Bharatiya Janata Party, BJP)당은 집권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회의와 두 번째로 큰 정당인 인도국민당을 포함한 20여 개의 야당 연합과 경쟁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73세의 모디 총리가 세 번째 5년 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인도 목회자 마니쉬 무커지(Manish Mukherjee, 가명)는 힌두교도가 인구의 약 80%, 무슬림이 약 14%, 기독교인이 3% 미만인 인도에서 많은 기독교인 유권자들은 인도에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고 소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 따르면,

인도는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에 28위를 차지했던 박해 순위가 올해 11위로 올라섰다. 모디 총리의 힌두교 우선주의로 인도의 기독교인 및 기타 소수 종교인들에게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됐다.

무커지 목사는 기독교 유권자들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대신 군주주의적인 통치 형태로 변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변화로 국가의 핵심 가치와 제도가 희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연합은 모디 정부가 선거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당국이 저명한 야당 정치인이자 텔리 주(州) 총리인 아르빈드 케즈리왈(Arvind Kejriwal)을 부패 혐의로 구금하고, 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의 은행 계좌도 동결했기 때문이다.

무커지 목사는 “지배적인 종교적·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인도의 미래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도 가톨릭 주교회의, 인도 전국 교회 협의회, 인도 복음주의 연합이 포함된 전국 연합 기독교 포럼(National United Christian



출처: Unsplash의 Naveed Ahmed

Forum)은 기독교 시민들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은 이번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모든 시민을 위해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지킬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무커지 목사는 어느 정당이 나라를 통치하든 관계없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의 희망을 전하며,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자유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GPNEWS]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아프간 탈레반, TV 채널 2개 폐지... 이슬람 가치 반해

아프가니스탄 통치 세력 탈레반이 이슬람과 국가 가치에 반한다며 2개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폐지했다고 지난 18일 AFP 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프간 정보문화부 대변인 쿠바이브 구프란은 TV 채널 '바리아'와 '누르'가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당 방송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탈레반 당국은 방송에서 음악을 틀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여성 TV 진행자에게 부르카 등으로 얼굴을 가리도록 하고 있다.

언론이 탄압받고 자유를 잃은 아프가니스탄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소서. 또한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이곳에서 성도들이 서로 믿음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 美 펜실베이니아 교회, 드래그퀸 초청 행사 논란에 취소

미국 펜실베이니아 마운트빌에 있는 '비전 오브 호프 메트로폴리탄교회(Vision of Hope MCC)'가 '드래그퀸(여장을 한 남성 동성애자) 이야기 시간' 행사를 계획했다가 결국 취소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이 교회는 4월 27일 '미스 에이미'로 알려진 드래그퀸 공연자를 초대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과 사실 확인 없이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을 이유로 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젠더퀴어(LGBT) 정체성을 가진 커뮤니티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진정한 예배를 위한 안전하고 신성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성경의 진리를 거슬러 세상의 정욕과 풍조에 휩쓸려가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미국의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 되게 하옵소서.

### 22대 당선 국회의원 29% 기독교인... “기독교 가치 실현 앞장서야”

이번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29%가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이 차별금지법 등 소위 악법들을 발의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은 총 87명(전체의 29%)으로, 더불어민주당 57명, 국민의힘 29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그동안 반기독교적인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법 악법, 생명파괴 악법, 일명 교회 폐쇄법 등 악법의 98%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반기독교적 악법을 막고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데 앞장 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GPNEWS]

## 이탈리아, 낙태 고려 여성에 모성 상담 허용 법안 통과

낙태가 합법인 이탈리아에서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게 '모성을 지원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가 여성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뉴스맥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지난 23일 표결에서 정부가 발의한 낙태 관련 법안을 찬성 95표 대 반대 68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 반대 단체 또는 '모성을 지지하는' 단체가 상담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 단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정보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약 15년 동안 꾸준히 하락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저치인 37만 90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멜로니 총리는 2033년까지 매년 최소 50만 명의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인구학자들은 이탈리아의 고령화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1978년 '법 194호(Law 194)'를 제정하고, 임신 첫 12주 또는 그 이후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협할 경우 요청 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GPNEWS]



# 이스라엘-이란의 최근 충돌... 분쟁 확대는 누구도 원치 않아

## 사상 최초,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공격 감행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13일, 이란은 자기 영토에서 1800km 거리의 이스라엘로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가미카제 드론을 발사했다. 이는 중동에서 수개월간 이어진 전쟁에 대한 절정의 순간이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건물 공습에 대한 응징이라는 뚜렷한 명분을 지니고 있다. 이란의 공격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국경을 지나 목표물을 향해 이스라엘 본토를 향했다. 그동안 이란은 같은 무슬림 시아파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뒤에 숨어서 자기 얼굴을 숨겨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란은 역사상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 영토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직접 공격했다.

## 이란의 급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시작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관계는 여러 해 동안 상당히 변화해 왔다. 중동 지역의 더 넓은 지정학적 역할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원래 양국은 앙숙이 된 지금과는 달리,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후에도 협력관계였다. 당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튀르키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이슬람 국가였다. 당시 팔레비 정권 아래, 이란은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주의에 대한 전략적 동맹으로 보고, 서방 세력과의 연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이 협력 시기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안 기관, 특히 정보 서비스 구축을 돕는 등 경제적 및 군사적 협력이 포함되었다. 당시 이스라엘도 비 아랍계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해서 지지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주변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에 당시 이란을 동맹국으로 대우했다. 심지어 이란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당시 아랍 국가에 공공의 적이었던 이스라엘에 석유를 공급하기도 하고, 군사 프로젝트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는 등 별다른 분쟁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1979년에 이란 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고, 이란의 친미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란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 버린다. 당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성공은 친미에서 반미로, 친이스라엘에서 반이스라엘로, 세속 이슬람에서 원리주의 이슬람으로 국내 정치와 외교, 사회와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새로운 정권으로 등장한 이란 이



▲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구시가지(좌)와

슬람 공화국의 수장인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리더십 아래 이란은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서방 국가의 전초기지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끊고 경제적 협약을 종료했으며, 지역 내 다른 반이스라엘 그룹들,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여러 파벌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이런 이념적 전환은 대리전과 비밀 작전을 특징으로 하는 장기적 갈등의 무대를 마련했다. 양국의 이런 지속적인 긴장 관계는 핵 시설에 대한 공격, 주요 인물 암살, 시리아와 예멘과 같은 제3국 충돌에서 양국이 서로 반대하는 측을 지원하는 등의 사이버 전쟁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포함하며 발전했다. 하지만 이런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때때로 이념적 분열을 일시적으로 초월하는 전략적 필요에 따라 비밀 협력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 작용은 종종 국제 관계의 모순적인 성격을 반영하며, 전략적 요구가 이념적 분열을 일시적으로 무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중동 지역의 더 큰 전략적이고도 이념적 갈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두 국가의 역사적 유산, 종교 이념, 그리고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었다. 당시 카터와 레이건 정권으로 이어진 미국은 중동을 향해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치면서 이슬람권 국가들을 향해 적대적 성향을 보였지만, 강력한 친이스라엘적 중동 정책으로 여러 이슬람 국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방의 외교적 농간에 아랍인들의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 빼앗겼다는 아랍 국가들의 분한 감정과 불만은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을 함께 적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원수의 친구도 원수이기 때문이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성공 이후부터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모든 외교, 무역 관계를 단절했으며,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후



이란 수도 테헤란. / 출처: Unsplash의 Cole Keister, Sepehr Aleagha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유감 없이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 등에 돈과 무기를 제공하면서 분쟁의 싹을 키워왔다.

## 양국 분쟁의 절정은 이란의 핵무장 사태

양국 간 분쟁이 절정으로 치닫는 계기가 된 사태는 바로 이란의 핵무장이었다.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 전체를 상대로 힘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던 배경은 중동 유일의 핵보유국이었던 때문인데, 이란이 핵개발로 핵보유국이 되면서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그 이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다른 중동 국가의 핵무장까지 부추길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이번 '이란-이스라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양국의 관계는 최악이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군사적 공격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양국의 충돌은 예고되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은폐된 전쟁'으로 묘사한다. 이는 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 서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공식적 충돌을 피하면서 이란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3국의 무장 단체들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한편,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란의 핵무장을 막는 것에 집착해 왔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암암리에 제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벌인 대규모 군사 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공격이 이 지역에서 연쇄 충돌 사태로 전개될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레바논 국경에서 헤즈볼라 민병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서의 충돌이 최근 몇

달간 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누구도 현재의 충돌과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파괴적 전쟁을 치러왔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이전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다. 이란은 하마스와 달리 하나의 국가이며,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주체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최근 수개월 동안 이란 여성들의 종교적 차등에 반발해 온 국내 시위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에 실시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직 인물이 다수 사망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란에 별 이득을 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즉, 이번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 내부의 목표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란의 군사력과 현 이란 정권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평가될 수 있다.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도 현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란은 이웃 국가들의 지지를 잃었으며, 다른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이란 스스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거리에서뿐 아니라 이란 내 저명한 인사들로부터도 강한 정치적 압력을 받는 실정이다가 강력한 응징과 복수를 원하는 이란의 혁명수비대로부터 압력을 받아오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제 더 강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이란의 공격 이전까지 이스라엘 안에 있던 현 정권을 향한 거센 비판을 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과 다른 서방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 미

국과 서방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내부는 최근 전쟁과 동시에 발생한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국민 인질 석방에 별 진전 없이 악화하고 있다. 또 이번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힘의 역학 관계를 인식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이란의 침략을 막지 못했다는 약점이 드러난 셈이 되었다.

## 이번 사태 이후 중동 지역에서의 전망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해당 지역의 국가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의 싱크 탱크인 애틀란틱 위원회의 중동 담당 부국장, '마수드 모스타자비'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기고문에서 "오늘 밤의 공격이 더 광범위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발전한다면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인식되는 지역 관련국들은 대규모 충돌의 한가운데에 놓일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지역 국가 지도자들은 양국이 분쟁을 끝내도록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쓴 바 있다. 결국 누구도 이 지역에서 이번 충돌로 인해서 긴장 관계가 오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분쟁의 충돌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것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양국의 체면과 위신이 떨어지지 않고, 명분을 세워주면서 양국 모두를 만족시켜 줄 협상안을 하루빨리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과 손실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 양국의 협상을 위해 어느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몰려있다.

우리는 이번 이란-이스라엘 사태뿐 아니라 지금 지구촌에서 다양한 이유로 긴장과 충돌, 이로 인한 전쟁과 난민 발생이 지속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민족을 향해 더욱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하며, 이 난리들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그리고 이 와중에 피해당하고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GPNWS]

김종일 교수(아신대학교 중동연구원)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박성준 전도사 (새삼침례교회)

### • 1면에 이어

-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2021년에 학교(매스터스 신학교, The Master's Seminary(TMS))를 마치고 한국에서 사역할 마음을 품고 귀국했는데, 모든 교회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코로나가 막 끝난 상태였는데, 새삼침례교회(담임 강효민 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년 동안 교회 나오는 게 어렵다 보니 청년부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어요. 당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할 때, 저와 아내, 하와이와 태국에서 알던 지인 3명과 함께 청년부 예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20여 명 남짓한 청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인도해주셨어요. 여러 청년들이 때마다 지역교회를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그 청년들이 각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 둘 외부에서 온 청년들로 청년부가 구성됐어요. 당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기존에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1년 동안 청년들에게 연락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2년째부터는 기존 청년들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기존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청년들과도 잘 융화가 됐어요.”

###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생의 진로

“저의 20대는 방향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서른 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청년 때 했던 고민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들의 진로예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들이 많죠. 또 한 가지는 결혼이에요.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연애 관련된 일에 관심과 고민이 많아요.”

- 이 시대의 청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방향을 찾거나 회복돼 가는 걸 보시겠네요?

“제가 인생을 조금 더 살았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제 생각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본인들이 결정해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분명한 확신과 기준이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조언도 해주지만 가장 신경 쓰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상황이 닦혔을 때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에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함께 하고 있어요.”

- 청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청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모든 인생사의 모든 결정에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주일에도 음식점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일에 교회에 못 나오게 되면 본인이 영적으로 힘들게 경험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아니까, 그 일을 그만두고 주일에 일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확보되는 직장을 선택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청년들이

릴 때부터 20살만 되면 독립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20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안나가게 됐어요.”

### 방황의 시간, 20대를 보내다

- 청년기에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군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10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어요. 세상을 쫓고, 돈을 좇아 살았어요. 사업도 많이 하고요. 청바지, 주얼리 사업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며 여러 부분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가족 중에 사촌 형이 해외에서 하는 선교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곳의 영어 훈련을 제게 추천해줬어요. 당시 저의 영혼 구원은 온 가족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족 중에 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새벽 기도 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가족들은 저를 위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기도해 주셨고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저에게 해외에서 잠깐 쉬었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공: 박성준 전도사

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이타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따뜻하게 환대하는 분들이었어요. 저를 상담해 주시면서 제가 최대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태도 때문에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한번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다른 세상에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어요. 원래는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돌아가지 않게 됐어요. 이곳에 더 남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신앙 훈련을 더 받고 간사로도 섬기면서 1년 좀 넘게 하와이에 있었어요. 이곳에서 아내도 만나게 됐어요. 아내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남아공에서 한 8개월 영어 공부를 하고 2013년에 한국에 돌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태국으로 떠났죠.”

존 맥아더 목사님 설교였어요.”

- 전도사님에게는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네요.  
“특히 2013년의 스트레인지 파이어 컨퍼런스(Strange Fire Conference)를 들으며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받았어요. 은사주의가 왜 비성경적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저의 신앙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시 저는 다양한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맥아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새로웠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몰랐거든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의 영어 실력으로 메시지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설교를 한국어로 다 번역을 해줬더군요. 끝까지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정말 고통의 과정을 거치며 뭔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알고 있었던 것이 다 뒤집어지는 시간이었어요.”

- 어떤 내용이 강력하게 와 닿은 건지 궁금하네요.

“맥아더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을 설교하시면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으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하는 확신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GPNEWS]

C.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2012년 하와이 훈련 과정 중 야외예배 및 친교의 시간. / 사랑하는 가족들과 존 맥아더 목사님 함께. 제공: 박성준 전도사



세워지면서 인생의 다양한 선택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들려주세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셨죠?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모든 가족이 한 교회를 다녔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1893년에 세운 승동교회예요. 1900년대에 초창기부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모두 교회를 섬겨 오셨어요. 특히 할머니(故 오문희 권사)는 믿음의 거인이셨죠. 어디를 가나 전도하시고, 온 가족을 전도하셨어요. 30여 년 동안 새벽 기도 빠진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집이 강남이었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인사동까지 오가시며 새벽 기도 반주를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반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20살이 넘으니까 교회에 갈 이유를 못찾았어요. 제가 엄청나게 반항적이었어요. 어

하시더군요. 저는 하와이라는 말만 듣고 집에서 지원도 해준단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 그곳 생활은 어떠셨어요?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하는 영어 연수 프로그램으로 알고 갔어요. 사람들이 무대에서 점프하고 춤추고 기타 들고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저는 박수도 안 치는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거든요. 이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도저히 여기에 못 있겠다 싶어 돌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연수 프로그램을 섬기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미국 선교사님들이셨어요. 통역사를 앉혀 놓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어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충격적이었어요.”

-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제가 10년 동안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사기 치

### 그리스도인의 환대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가져

- 태국에는 왜 가신 거죠?

“계속 사업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외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은 중국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는 단계였어요. 영어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에게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시장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려는 시기였는데 아내와 함께 섬기기 시작했어요. 1년 반 정도를 섬기게 됐는데, 저에게 성경을 영어로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이분들은 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인데 단지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영어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게



선교 통신

# 반중 정서의 대만, 전쟁의 가능성은?

최근 몇 년간 동북아시아의 안보, 특히 대만의 총통 선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고조됐다. 그동안 중국이 보여왔던 무력시위가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임 총통의 반중 성향이 매우 불편했던 중국은 이번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의 당선을 바랐을 테지만 결과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3선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재확인하게 됐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들로부터 '대만은 안전한가?',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등의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전쟁은 생각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첫째, 반도체 때문이다. 대만인 가운데 '반도체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시스템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는 가전제품은 물론 자동차, 선박, 건축 등 여러 분야에 엄청난 손실을 주었다. 그 후로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반도체



▲ 길거리에서 우상 숭배하는 대만 사람들. 제공: 한국WEC국제선교회

체를 점유하려는 치열한 쟁탈전이, 반도체 생산 원료와 장비를 선점하려는 경쟁으로까지 확대됐다.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국가인 대만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만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세계의 일류국이 되고 싶어 하는 중국은 일대일로(유라시아대륙과 아프리카·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경제벨트)를 통해 과거 물류의 중심이었던 '실크로드'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비롯해 남중국해를 장악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더 이상 당사국들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증명돼 왔다. 만약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대만해협으로 운행하던 수많은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우회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류비 상승은 국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자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한 대만과 중국의 전쟁을 국제사회가 그

저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전쟁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이 대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만의 영적 분위기는 일본과 비슷하다. 대다수의 대만인들은 집안에 사당을 세우고 조상의 위패와 자신들이 믿는 신상을 두고 매일 아침 '빠이빠이(제사 또는 기도)'를 올리고 향을 태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도교와 불교, 조상숭배가 혼합돼 있는 빠이빠이가 대만의 고유 문화나 전통의 개념으로 자리잡혀 있는 것을 보면 대만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춘절 기간에도 조상, 우상을 섬기는 대규모 제사나 집회가 대만 곳곳에서 진행됐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대형 백화점이나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20~30미터의 제사상을 차려놓고 전 직원이 빠이빠이를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도시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사원으로 변해버린 느낌마저 든다. 대만인들은 액운을 쫓고, 행운을 기원하기 위해 빠이빠이를 올리지만, 오직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대만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우상 숭배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 대만 선교, 그리고 대만을 통한 중화권 선교를 위해서는,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우상 숭배의 영과 영적 전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대만을 지켜 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만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두려움에 눌려 있는 대만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대만 선교사들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파송되도록, 그리고 선교사가 필요한 대만에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 [GPNEWS]

박정현 선교사  
한국WEC국제선교회 RUN 매거진 발행

**복음의 능력**

## 거듭난 사람, 동료 신자를 더욱 사랑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일 3:14)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한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극악한 죄인도 사랑하지만 동료 신자들을 더욱더 사랑한다. 거듭난 사람은 동료 신자들과 함께 어울릴 때 가장 편안해하며, 세상에서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거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또한 거듭난 사람에게 동료 신자는, 같은 대장의 지휘 아래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전우이자 같은 길을 걸으며 똑같은 어려움을 겪다가 영원한 집에 당도해서 편히 쉬게 될 동반자이다. 그들 사이에는 영적 유대감이 싹튼다.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 등 다른 점이 많지만 그런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 HIV 감염이 장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대구에 사는 70대 인 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A씨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장애인 등록을 해달라고 동사무소를 찾았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는 장애진단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청각 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지체장애 등 15가지 유형의 장애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HIV 감염은 이러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HIV 감염으로 인한 우울증·말초 신경염·골다공증·당뇨 등 7가지 합병증 증세를 담은 의사 소견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이러한 증세로는 장애인 접수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A씨와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을 받으면, 약 40여 가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노리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은 'HIV 감염인들이 70대 HIV 감염인을 내세워 판사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 같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 2015년 미국 동성혼 소송 당사자들 노인들로 한 것은 바로 그런 전제에서 시작됐다. HIV 감염인 그룹에서 이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IV에 감염돼, 약을 잘 먹지 않거나 말기가 되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현되는 것을 AIDS(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라고 한다. AIDS 단계에 이르면, 뇌에 손상이 발생하고 신경인지장애가 발생한다. 가령, 면역 결핍이 심한 말기 HIV 감염자에게서 기억력, 인지력, 행동력, 운동기능 등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증상을 가진 증후군이 나타난다. 이것을 'HIV 관련 신경인지장애'로 불리며, 이는 장애 진단 기준에 포함된다. 즉, HIV 감염인도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애 정도가 나타나면 장애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구 사례는 장애 기준에 들지 않음에도 복지혜택을 더 받기 위해 장애인 인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HIV 감염인 그룹이 추진하는 논리는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 인정이 아니라 '차별, 배제, 억압'을 이유로 한 장애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애가 인정되는 질환이 늘어난다. 하지만 HIV 감염증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개념에 맞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폐성 장애라는 질병 자체를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보고 정의하다 보니, HIV 감염 자체를 장애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오게 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HIV 감염인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능하다. 첫째, 장애 측정을 신체 구조와 기능의 손상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손상에 따라 사회적 기능에 제한이 있음을 입증하면 된다. 이럴 경우, 많은 HIV 감염인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장애인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소득보장서비스 등과 같은 서

비스 유형별로 별도 기준을 만들고, 이때 기준으로 사회적 기능의 제한, 즉 일상생활정도(ADI)와 수단적 일상생활정도(IADL)를 사용하면 된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개념도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기준으로 만일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한가? HIV 감염인도 장애 등급을 받으면 공평하게 장애인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게다가 장애의 명분이 '한국 사회가 HIV 감염인을 차별, 배제, 억압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게 장애의 명분이 될 수 있을까? 또한, 일반 국민들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차별, 배제, 억압'을 받은 적이 있으니 모두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면 나라 재정이 남아날까? 전 국민의 장애인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모쪼록 대구의 법정에서 정치적 판사가 아니라 법에 따라 판결하는 양심적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3)

#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복음!

내 마음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고민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마음 먹을 때 저절로 된다면 목회자가 왜 필요하며 목회가 무엇이 어려울까. 내 인생을 내가 임의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불가능한 일이다.

그토록 영생을 추구하고 애를 쓰며 율법을 어긴 적 없이 최선을 다해온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돈 또는 영생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돈하고 비교가 되는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생보다 잠깐 누리는 돈의 유혹이 워낙 강한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붙잡지 못

한 채 이 돈에 대한 애착과 정욕에 끌려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어긴 적 없는 모범 청년이었다. 게다가 유대인이요, 모태 신앙인 그가 영생과 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줄 구분 못하겠는가. 그런데 돈이 영원하지 않음을 뻔히 알면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멸망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기가 막힌 인간의 실상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복음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결단을 못해서 평생 질질 끌다가 결국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철통같은 경비망으로 둘러친 휴전선보다 더 견고하게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경계다. 하나님을 떠나 원수 되었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 구원과 변화는 절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현실에 급급해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 타협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반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선물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



일러스트=고은혜

은 모든 상황에서 충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며 살

아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기도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2018년 9월) <계속>

[GPNEWS]

김용익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GPM 복음기도신문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 eBook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음기도총서2

GPM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eBook도 있습니다

김용익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킨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 “달콤한 제안 대신 주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순종해요”

태국에서 5년이라는 시간에 허락하신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며 은혜로 살았다. 그리고 졸업 전 마지막 인턴십 학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원함이 있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7년이나 해외에 선교사로 있었으면 조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보상심리가 있었다. 영어도 어느 정도 하고, 태국에서도 5년을 지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또 K-POP 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태국에서 한국 인이라는 명찰은 아주 유용한 요소였다. 태국에서 인턴 자리를 구하고, 직장을 구하기 아주 완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에 잠깐 들어와 다음세대 복음학교에 참여했을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마 19:22)라는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전히 ‘나’를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전부로 주신 하나님 앞



일러스트=고은선

에 나도 또한 전부로 나아가 갈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인턴십에 대한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헤브론원형학교에 체육 교사의 필요를 듣게 하셨다.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깐 한국 방문 기간 중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헤브론원형학교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태국에 돌아갔다. 교수님들께 한국의 헤브론원형학교라는 곳에서 인턴십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몇몇 교수님들

께서 해외에서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솔깃한 제안을 하셨다. 파타야 아름다운 바다 주변에 있는 호텔에서 영어와 태국어 가능한 외국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적합하다며 몇 번이나 제안해 주셨다.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오가는 비행기 값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내가 딱 원하던 달콤한 제안이 들어오니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왜 헤브론원형학교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했다. 파타야의 호텔은 너무나

보기 좋은 떡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 할 내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런데 헤브론에 가면 듣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들리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니 내 영혼이 살아날 것이 분명했다.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곳이 헤브론원형학교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또한 나를 사랑하는 죄임을 보는 시간이었다. 마음을 결정하고, 내게 들어온 제안을 같은 반 외국인 친구에게 양보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의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헤브론에서의 하루하루를 드리고 있다. 내일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일 하루만 산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맡기시는 분량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다. 나를 전부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전부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GPNEWS] 최이지 선교사

## 데이터로 보는 한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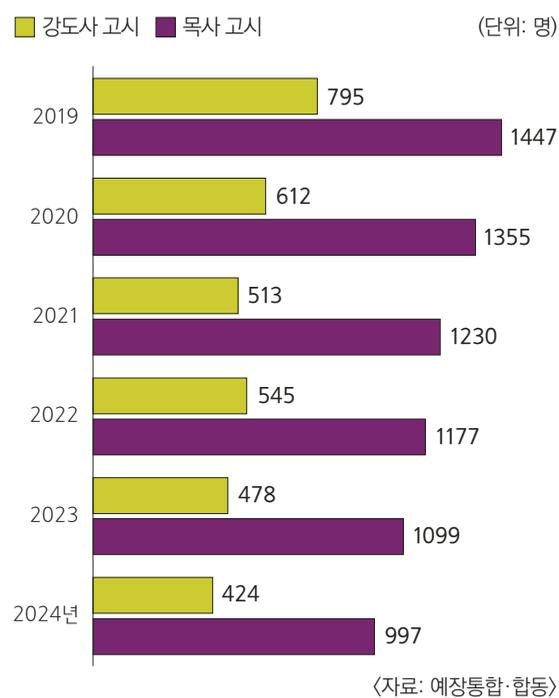


### 장로교단 강도사·목사 응시생 수 ... 역대 최저

우리나라 양대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과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올해 강도사·목사 고시 응시생 수가 근래 6년간 모두 최저를 기록했다. 이들 교단에 따르면, 강도사 고시 응시생은 2019년 795명 대비 약 47% 감소한 42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9년 1447명이었던 목사 고시 응시생 수는 올해 약 31% 감소한 997명이었다. 교계 관계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한국교회의 신뢰도 하락을 응시생 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주의 종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한국교회를 섬길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 강도사·목사 고시 응시생 추이



## 북한 부흥을 위하여

### 北, 수출 1위 인조 속눈썹·가발... 강제노동으로 제작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지난해 북한의 1위 수출 품목이었던 인조 속눈썹과 가발이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

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한국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주연회는 오는 11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단체는 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북한 내 수용소와 국제공급망 간의 관계를 조사해 왔다면, 북한 수용소에 중국산 재료들이

들어오고 이를 강제노동으로 제작한 완성품은 ‘중국산(Made in China)’이라는 이름으로 싼 가격에 전 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증언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 수출입 통계를 보여주는 ‘해관총서’를 인용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총 1680톤의 인조 속눈썹, 가발,

수염을 수출해 그 액수는 1억 6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57.1%를 차지하며 북한의 최대 수출품목이

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렇게 인조 속눈썹과 가발을 수출해서 번 돈은 모두 북한 정부 등 지도층에 보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GPNEWS]



▲ 중국 산둥성 평두시 인조 속눈썹 공장. 출처: 유튜브 채널 연유티 캡처

### 北 농촌, 원치 않는 출산 이후 신생아 양육 포기.유기 찾아

북한 농촌 지역의 출산율이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신생아의 사망률도 높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함경북도 농촌 지역에서 아이를 낳는 비율이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도시보다는 높다.”며 “도시 여성 5명 중 1명이라면 농촌

은 5명 중 2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에서 출산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돈이 없어 낙태 수술을 받거나 임신을 막는 루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원치 않는 아기를 출산하게 되고 그런 아기가 버려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난에 처

한 농촌 여성들이 양육을 포기하면서 버려진 신생아들이 사망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양실조와 열악한 의료 체계에 아기와 산모가 목숨을 잃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달 말 연사군에서는 30대 산모가 시설이 미비한 병원에 갈 대신 집으로 의사를 불러 출

산하다가 심한 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소식통은 “국가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으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탄을 사고 있다.”며 “국가에서 출생률 감소를 우려한다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전했다. [GPNEWS]



박리부가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은 제목만으로도 독자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십자가에서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신 주님 때문에, 그분을 날마다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은혜 때문이다. 책 안에서, 말씀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온 저자의 삶과 교회에 부여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다. 그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바쁜 일상에서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어주시며 주님을 누리게 하신다.

저자 박리부가 사모(선한목자교회)는 고등학교 3학년 자신의 생일날, 목회자였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소천으로 인한 슬픔과 삶의 과정과 과정마다 찾아오는 낙심케 하는 상황들 앞에서 수많은 시간을 기도로 살아왔다. 또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여 온 교회에서 처음부터 기도의 집으로 순종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계속해서 연합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책은 오직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될 때,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 영혼의 진정한 회복과 힘을 누리게 된다고

고백한다.

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기도 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붙들며 진리로 반응할 것을 권면한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기도 응답은 선물로 주어지는 열매이지, 문제 해결이나 기도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기도의 모든 약속은 이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나의 어둠함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또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이 기도를 바꾼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 주님과 관계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얻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아는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한 문장이 가슴 깊이 남는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기도를 검증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알게 되면 더 깊은 말씀기도로 나아가게 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흔들리는 나’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기도의 초점이 옮겨지게 된다. 말씀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주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해준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난 20여 년을 순종해 오고 있는 ‘기도

24·365’와 ‘느헤미야52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자와 교회에 부여하신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를 1년 365일 매시간 쉬지 않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24·365. 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교회가 열방의 무너진 영역을 기도로 세우는 ‘느헤미야52기도’의 걸음에 주님이 축복하셨다.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토켈라우’를 처음 듣고 기도하던 날, 앞으로 가 볼 일이 없는 그 나라, 땅 끝의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사랑이 부여져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쏟으며 알게 되었다. 이 기도가 아버지의 사랑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임을. 저자의 고백처럼, 교회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다. 기도에 대한 진리가 뼈곡히 들어있는 이 책을 통해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소서!

[GPNEWS]

양동원 선교사



# “예수님 믿고 부딪쳐 본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볼까?”

선교지에 나가기 앞서 1년 동안 국내 훈련기간을 가지면서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게 됐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다.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대는 아이, 졸리다고 자버리는 아이. 그러나 믿고 화가 나기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더 많이 부여 주셨다. 영어를 잘 알려주는 선생님보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야기를 들어줄 때면 신나서 끝도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됐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2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원장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나는 지금 외국인 교환 학생들을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아프리카, 몽골, 인도,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다. 이들은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이다. 부족한 영어로,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

해서 고개만 끄덕이면서 웃고 있을 때도 많지만,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이 친구들의 고향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선교사로 가게 될 나라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도 가지게 된다.

외국인 축구팀에서도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 그곳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다. 그 속에서 나는 선교사로 있다. 그래서 계속 조금이라도 친해지면 교회로 가자고 초청하고 있다.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한다.

지난 한 달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전까지는 항상 누군가가 내게 답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서 모든 선택과 결정에 누군가의 개입이 사라졌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마주하고 나니, 어떤 사소한 결정을 하는 것도 예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망설이게 됐

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10번은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았던 것 같다. 단 순히 성인이 되어서 자유분방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내게 그만큼 큰 자유가 허락된 만큼,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너무나 힘들면 어떡하지, 어떠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고 있고, 안전한 곳을 찾고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다.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됐다.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해줬던 말이 있다. “언제 부딪쳐 보겠니?” 지금까지 정해진 울타리에서, 제시해 주는 방향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 거하여서 무섭고 두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무작정 부딪쳐 보고 깨지면 깨질 수 있는 시간을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언제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번 한 달을 보내면서 나에게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두렵기도 하다. 20살이라는 시점

에서 있는 나의 출발점이 느리게만 느껴질 때도 많다. 그러나 출발은 더디더라도 도착하기만 하면 되니까, 느려도 걱정하지 않으려 한다. 무엇보다 이 출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두려워도 전진할 것이다.

내게 진정한 꿈과 진정한 벗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무섭고 두려워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생명 다 바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자라온 진정한 꿈이고, 멋이라고 생각한다.

나무가 뿌릴 것처럼 흔들려도 나뭇잎만 흔들리고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 무서워도 피하지 않고 20대에 날려 보내야 할 나뭇잎들을 날려 보내고 더 예수께 단단히 뿌리를 박아 더 멋있는 나뭇잎을 피우는 청년 선교사가 되겠다. [GPNEWS]

김승리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 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4. 4. 3 ~ 4. 24 (가나다 순)

#### 개인

강성민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지영 박성규 박신희 신혜경 유재황 유재윤 이은주 장진 정용영 정호진 조복형 하은숙 무명

####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반석중앙교회 나죽고예수시는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대구서현교회교정팀 선한목자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문광교회 열매교회 시온감리교회 주소망교회 험시바교회

####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